

GS칼텍스, LNG 교환사용 추진

가스공사 물량 여수공장 연료로 사용 ... 겨울철 직도입해 교환

GS칼텍스가 2009년 말로 예정된 LNG(액화천연가스) 직접 도입에 앞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미리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09년 여름철에 가스공사에서 LNG를 받아 여수공장 연료로 사용한 후 겨울철에 직도입해 되 갯는 교환 사용방안을 제안했다고 5월17일 밝혔다.

GS칼텍스는 2009년 말 6만톤급 LNG선 2-3척을 통해 LNG를 직접 도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LNG를 직도입하려면 자가 소비량의 30일분 또는 10만kl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부터 충청남도 보령리 일대 106만8000㎡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저장탱크와 집안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GS칼텍스는 당장은 LNG 저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가스공사의 인천·평택 저장시설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8>